

지역 중소기업 수출 · 온라인 판로 확대 ‘맞손’

전주시·전북지방우정청, 기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해상물류비 지원 · 우체국쇼핑 온라인 프로모션 공동 추진

전주시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본준)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북지방우정청은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상문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전북지방우정청 기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6년 해상운송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2026년 바이전주·우체국쇼핑 온라인 프로모션 추진 등이다.

먼저 시와 전북지방우정청은 전주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상·내륙운송비 일부를 지원하고,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은 국내 지방우정청 중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와 전북지방우정청은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구본준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상문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주시·전북지방우정청 기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상운송 해상물류비 지원사업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해상 및 내륙 운송비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와 전북지방우정청이 비용을 분담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근 우체국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대상으로 우체국쇼핑과 연계한 온라인 프로모션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전주·우체국쇼핑 온라인 프로모션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시와 전북지방우정청,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협업체 우체국쇼핑 기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바이전주 우수상품 전용 브랜드관 개설 △할인쿠폰 프로모션, 특가 프로모션 △라이브커

머스 홍보 △민간 쇼핑물 연계 판매 등이다.

시는 우체국쇼핑이 비교적 낮은 판매 수수료와 신속한 정산, 민간 유명쇼핑몰 연계 판매가 가능한 만큼 참여기업의 온라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접점 확대,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온라인 소비시장 진입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방우정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부담을 줄이고, 바이전주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협약은 수출 중소기업에는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 효과를, 바이전주 인종기업에는 온라인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협력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전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역 우수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운영된다.

오목대 전통정원 친수 쉼터 운영

전주시, 무더위쉼터 ·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등 진행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쉼터가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통정원에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무더위 친수(水) 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친수(水) 쉼터는 오목대 전통정원의 기존 인공연못을 활용해 시민들이 직접 물을 담고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시는 이곳 연못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파라솔과 휴게 의자, 방풍기 등을 설치해 무더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한 인공연못 주변에는 인공 잔디와 전주공예품전시관의 대표 캐릭터인 ‘호사원’을 활용한 등산대, 대형 풍선 인형을 활용한 포토존을 연출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쉼터 운영을 넘어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선아트, 비눗방울 공연, 버스킹 공연 등을 운영해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여름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시원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목대전통정원과 태조로 쉼터 일원에 쿨링포그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쿨링포그는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체감온도를 낮추고 이용객들에게 청량감을 제공하는 시설로,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무더위를 잠시 잊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도서관, 전북대와 손잡고 인문학 저변 확대

전북대 인문대 교수진 · 외부 강사 참여 8월 26일까지 총 27회 인문학 강연 운영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들이 시민 생활권 곳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인문학 강연에 나선다.

전주시는 14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전주시 도서관 지식플랫폼: 정통과 디지털의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전북대학교 인문

대학 소속 교수진과 외부 강사 등 총 27명이 참여해 12개 도서관에서 다양한 인문학 주제로 강연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 14일 건지도서관에서 열린 첫 번째 강연에는 김성규 전북대 사학과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동아시아 한자 개념어 유래의 역사적 계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고영란 일본학과 부교수의

‘일본 고전 문학 속 요리 이야기’(15일, 인후도서관) △오지호 철학과 조교수의 ‘독일고전철학 새로 보기’(16일, 호자도서관)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강좌 시작 2주 전부터 전주시도서관 누리집 또는 해당 도서관(전화)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여름방학 도서관 특강 운영

어린이 · 청소년 640여명 대상 22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맞춤형 도서관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등 12개 시립도서

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등 64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특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책을 매

개로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강은 총 2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그림책 ‘아기산호 플라네타’와 함께 바다 액자 만들기(꽃심) △책 읽으며 꿈자락 꿈자락(서신) △수박 수영장 스토리테라리움(호자) △유리로 만드는 나만의 악세서리(금암) 등이다.

또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트윈

세대 전용 공간인 ‘우주로 1216’에서는 오는 8월 8일 트윈세대인 12~16세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을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완산도서관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견학과 사서·작가와의 만남, 일반 시민을 위한 여름독서캠핑 등 도서관을 보다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원 부과

전주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2만건(6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 원(1.3%) 증가한 규모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주시의 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이 전년 대비 1.68%, 공동주택이 7.37% 상승하면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높아져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7월 건축물과 주택(연세액의 2분의 1),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CD·ATM기,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